

조선대, 북구청과 AI·SW 융합 코딩교육 성료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광주시 북구청과 '겨울방학 AI·SW 융합 코딩교육' 프로젝트를 6년 연속 성료했다. (사진) 이 사업은 조선대와 북구청이 2020년에 체결한 '인공지능(AI)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이번 교육에는 2월 주말 기간 북구청소녀수련관에서 전대사대부중, 각화중, 금호중앙여고, 양산중, 송일중, 전남여상, 살례시오고 7개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조영주 조선대 AI·SW교육센터 담당교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 조교진과 함께 AI·SW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제작, AI 로봇손 제작 등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신세계, 2025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백화점 본관 1층 후문 인근에서 '2025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헌혈행사에는 광주신세계 임직원과 백화점을 방문한 일반 고객들까지 두루 참여해 이웃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캠페인에 임직원 및 고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기념품에 추가로 5000원 상당의 육각커피 이용권 2매를 증정하기도 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혈액부족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고자 헌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고흥천 탐진장학회 이사장

고씨 광주전남총문회장 취임



고흥천(사진) 탐진장학회 이사장이 20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양산동 백년한우 식당에서 고씨 광주전남총문회 36대 회장에 취임한다. 고 회장은 취임을 계기로 고씨장학회에 3000만원, 장학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고씨 광주전남 총문회를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장흥과 강진에서 인쇄·발굴·육성 등 장학사업을 하는 탐진장학회를 이끌고 있다. 또 5선 장흥정남진조합장으로 농촌경제와 지역발전에도 기여했다. 정남진농협 초대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4000평 부지에 전국 최초로 분점 하나마트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을 신축, 조합원 고객이 한 곳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환경정화 봉사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윤남식)는 19일 5·18기념공원 일대 환경정화를 위한 '2월 한마음봉사'를 실시했다. (사진) 한마음봉사는 5·18공로자회가 연중 매월 1회 실시하는 활동으로 이번에는 1365자원봉사자 10여 명과 중앙회 임직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환경 정화에 앞서 1365자원봉사자들에게 1980년 5월의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유 등을 교육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에 장용채 목포해양대 교수



목포해양대 해양건설공학과 장용채(사진) 교수가 19일 전남대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장 선임 지회장은 1994~1999년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지반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고속도로 건설 연구에 매진했다. 이후 목포해양대에서 연구활동과 후학 양성에 힘써오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전남도청 이전과 J-프로젝트, F1경기장 건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울촌산단 조성 당시 연약지반 처리와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했다. 광주·전남지회는 1976년 대한토목학회 호남지회로 창립한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토목기술 발전과 학술교류를 목표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지역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회원도 1500여 명에 이른다. 장 회장은 "토목구조대, 학술 지원, 건설산업 기술 연찬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지회를 발전시키고 회원 간 화합과 건설업 발전에도 기여해 갈 계획"이라면서 "토목공학 발전과 토목기술자 지위 향상을 통해 학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재능기부 형태인 119토목구조대 활동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민생위기 비상자문 위원 위촉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신협중앙회 이사·오른쪽)이 '민생위기 비상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민생위기 비상자문 위원회 위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민생위기 비상자문 위원회는 고 이사장을 포함 총 16명으로, 자문위는 즉각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및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하는 의장직속 자문기구이다. 고영철 이사장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고민하고,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선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30 KBS 뉴스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0 사랑의 가족(재)	1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재)	15 건강의 재구성 셀록(재)	30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2	25 동해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보보보 좋아좋아 스페셜 5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김원희의 워너드(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신데렐라 게임 스페셜	25 한글용사 아이(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00 KBS 뉴스특보 30 방과 후 초능력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재)	55 5시 뉴스와 경제	45 2025 AFC U-20 아시안컵 D조 <대한민국·일본>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10 보통의 존재	00 풀라레스큐 15 위시켓 30 생활의 달인 스페셜 50 생방송 투데이	
00 KBS 뉴스특보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다크 스페셜 <솔로하우스>	00 풀라레스큐 15 위시켓 30 생활의 달인 스페셜 50 생방송 투데이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다크 스페셜 <솔로하우스>	00 풀라레스큐 15 위시켓 30 생활의 달인 스페셜 50 생방송 투데이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신데렐라 게임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30 결혼하자 맹꽁이!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	00 시사토론 시사광포로	00 SBS 스페셜 The 뺑(재)	
00 다크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개그 콘서트 스페셜	45 MBC 뉴스 25	30 보물섬 미리보기(재)	
00 KBS 중계식 <베도벤 합창교향곡>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문화콘서트 난장	00 테마스페셜(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50 PD로그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진짜 겨울왕국 폴란드 -아우슈비츠와 폴스키>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1:35 한국기행 <겨울아, 놀자 4부 오지, 행복이 오지!>
07:3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55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07:45 하프와 친구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2:45 다크멘터리
08:00 덩동덩 유치원	15:55 블록S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덩동덩 유치원(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8:50 도래미 프렌즈	16:30 페파 피그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05 골짜기와 처을 수학	16:40 마사와 곰	24:55 지식채널e
09:20 사내수공예 가수 - 다비드 봉	16:55 하프와 친구들(재)	
09:40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0:30 한국기행(재)	17:40 레인보우 버블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1월 23일 庚申)

<p>36년생 성사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48년생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꼭 이루어진다. 60년생 죽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해나감에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72년생 판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하라. 84년생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96년생 보안만한다면 달성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85</p>	<p>42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 해오던 것을 마침내 이루리라. 54년생 힘든 만큼 비례해서 향후의 결실은 알찰 것이다. 66년생 옛것으로부터 갈함을 따를 수다. 78년생 원래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90년생 혁신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할 시기이니라. 02년생 추세에 영합하려 하지 말고 죽대를 가져라. 행운의 숫자 : 06, 84</p>
<p>37년생 생기에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49년생 실제로 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61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의 법이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73년생 유동적이니 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 해야겠다. 85년생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97년생 그냥 두고 보자. 행운의 숫자 : 27, 88</p>	<p>43년생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55년생 마음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67년생 대세에 순응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79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91년생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실체를 접하는 길목에 이른다. 03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35, 73</p>
<p>38년생 현상을 무시한다면 판도를 좌우할 만한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다. 50년생 변수가 보이니 충분히 알고 개입해야 한다. 62년생 기존의 상식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리라. 74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86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98년생 구원으로 인한 임박이 깊으리라. 행운의 숫자 : 40, 92</p>	<p>44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5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68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당일에 마무리 하는 것이 이롭다. 80년생 공을 들여야 성과를 볼 수 있느니라. 92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04년생 흥결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3, 50</p>
<p>39년생 목격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51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63년생 인식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못 미치니 안심해도 된다. 75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87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접하는 기쁨이 있다. 99년생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7, 87</p>	<p>45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다. 57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다. 69년생 예지치 못한 국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운로를 참고한 후에 진퇴를 결정해야겠다. 81년생 과신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느니라. 93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46, 58</p>
<p>40년생 직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52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64년생 침착하게 들어 보면 놀랄 일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76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00년생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8, 67</p>	<p>46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58년생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70년생 의도했던 바를 향해 양호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입지이다. 82년생 절실한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씩 해결되리라. 94년생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판세임을 인식하게 된다. 06년생 감금하게 보완하라. 행운의 숫자 : 12, 83</p>
<p>41년생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양호해진다. 53년생 여태까지 오던 길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는 것을 알라. 65년생 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77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89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01년생 미진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리라. 행운의 숫자 : 45, 75</p>	<p>47년생 기반을 이뤘다는 면모이다. 59년생 백년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71년생 가급적 나서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냄이 백년 내를 것이다. 83년생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만 양호한 결과를 낳는다. 95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리라. 07년생 과정에 충실한다면 득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05, 68</p>